



## (주)대성

|  |                         |           |
|--|-------------------------|-----------|
|  | <b>기업 정보</b>            | 회사명 (주)대성 |
|  | 대표자명 박길홍                |           |
|  | 주소 경기 화성시 장안면 무봉길 185-9 |           |
|  | 주생산업 배선기구, 멀티탭          |           |
|  | 홈페이지                    |           |

1989년 설립되어 약 45명의 직원 수를 보유한 배선기구 전문 제조업체이다. 지난 2002년 국내 배선기구 업체 최초로 중국에 진출하였으며 국내 유일하게 러시아, 유럽, 중동 국가 등으로 해외 수출하고 있다. 또한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의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형마트가 인정한 제품이라는 신뢰도와 무형의 브랜드가치를 찾았다.

해외진출,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업, 친환경 PP케이스 도입 등 다양한 시도들을 선제적으로 하면서 국내 배선기구 분야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다.



### 불량을 개선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KC인증

KC인증으로 인해 제품에 대한 불량률이 개선되고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몸소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KC인증 획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획득 후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증이 마무리가 되면 업무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한다.

초창기 연구 및 기획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시기에 안전성을 바로잡지 않으면 사후 수정이 어려워져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자세는 인증 후 비용 부담을 줄어줄게 해준다고 여긴다.

인증을 획득하기 까지 기간이 길고 즉시 대응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 중소기업에게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된다는 면도 있다.

### 믿음직한 제조는 물론 불법 불량 제품 유통 근절에도 힘써

(주)대성은 안전과 신뢰라는 바탕으로 고객 입장에서 안전하고 믿음직한 제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년에 3~5회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엄격한 내부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관리 교육은 제조업체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며, 교육으로 인해 규격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2019년 박길홍 (주)대성 대표이사가 한국제품안전협회 배선기구 협의회장에 선출되어 배선기구 업체들의 권익 향상과 불법 불량 제품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실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제품안전협회를 통해 네이버에 공문을 보내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제품에 문제가 있는 업체들을 쇼핑몰에서 내리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불법제품 근절을 위해 앞장서며 공정한 제품안전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처럼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불량제품의 고발조치를 주도하는 면모를 인정받음으로써 2020년 7월 이달의 대한민국 제품안전인상을 수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산 제품을 국산 제품으로 둔갑하여 국내 제조 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업체로 인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법 및 불량 제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국내 제조 기업들이 힘을 얻어 제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